

病院人 혼연일체의 단결과 협조로 難局타개



大韓病院協會 회장 白 樂 院

존경하는 내외귀빈, 특히 멀리 日本, 自由中国과 필리핀에서 오신 아시아病院聯盟 회
원국대표, 그리고 오늘의 총회를 위해 협찬을 아끼지 않으신 金炳洙부산시지부장님과
전국 각지에서 불철주야 환자진료에 노고가 많으신 회원병원 원장님을 비롯하여 병원의
任職員 여러분!

오늘 大韓病院協會 제26차 정기총회를 우리나라 최대의 港都 이곳 釜山에서 열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하며 이처럼 참석, 대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함과 동시에 본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초 회원간의 情報交換과 親睦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병원의
권익옹호와 발전을 추구하면서 國民医療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大韓病院
協會가 금년으로 창립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도 사회 각계 각층의 따뜻한 지도와 성원 그리고 회원병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속에
꾸준히 성장하여 지금은 전국에 11개 市道支部와 회원수 5백여 병원에 달하는 막강한
조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와 같은 조직의 확대 성장에 비추어 協會가 과연 얼마만큼 회원병원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사회적인 기대에 보답해 왔는가를 自省해 볼 때 協會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지만 그 성과는 기대한 만큼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으로서도 송구스런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저렴한 醫療保險酬価, 病院稅制 및 公課金 부과의
불합리성과 병원 육성지원책의 미흡 등 주로 정책적인 당면과제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병원들의 경영실태는 날로 惡化一路에 있으며 雪上加霜으로 병원은 불철주야 회생 봉사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사회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受任하게 되어 더욱 책임이 무거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병원 廣惠院이 개원한지 1백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病院協會는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에 綜合學術大會의 개최, 오랜 우리의 숙원인 會館建立, 회원병원간의 학술과 정보교환을 위한 機關紙 발간 등 몇가지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정성어린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잠시후 續開되는 총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본인이 회장직을 맡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로서는 특히 회원병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또 신년도 사업방향도 같은 맥락에서 中小病院의 육성발전을 비롯 醫保酬価의 현실화, 病院稅制 및 公課金 개선 등에 치중하는 한편 「참된 病院像」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을 提高해 나갈 수 있도록 弘報事業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막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장 한사람의 힘이나 집행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전국 회원병원의 혼연일체가 된 단결과 협조가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회원병원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전국 회원병원 여러분!

지금 우리 病院人은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醫療를 보는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오고 병원은 지역사회 의료의 중심체로서 그 임무와 기능이 막중해졌으며 사회적인 기대와 이에 뒤따르는 비판의 와중에서 우리는 때때로 「병원이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하는 불안과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당면하여 本會는 금년 총회의 주제를 「국민을 위한 병원의 나아갈 길」로 정하고 평소 우리 의료계가 존경하는 선배 이시며 元老이신 張起呂박사님으로부터 「병원경영의 정신적 자세」에 관해서, 그리고 尹德善박사님으로부터는 「병원경영의 전략적 접근」에 관한 철학과 신념의 말씀을 경청키로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두 선생님의 특별강연이 오늘의 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두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귀빈 그리고 전국 각지로 부터 참가해 주신 회원병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다 해주신 釜山市支部 金炳洙지부장님을 위시하여 임원 여러분께 거듭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 5월 1일